사람이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자

(시편 146:1~10)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사람이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사람이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자'
우리는 흔히 사람이니까 약해서 홀로 설 수 없기에 서로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홀로 설 수 없기에 서로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홀로 설 수도 없는 사람을 의지해서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사람이 필연적으로 서로를 의지해야 함을 나타낼 때에 한자의 사람 인(人)을 예로 듭니다. 막대 두 개가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사람을 막대로 비유했으며, 이것이 맞는 비유라면 정말로 막대 두 개를 붙여놓으면 서 있습니까? 널빤지라면 몰라도 막대는 서로를 의지해봐야 앞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사람을 비유하자면 연체동물 오징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이 인격적 연체동물이라는 말입니다. 오징어는 서로 버텨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이러한 연체동물에 비유하자면 아무리 서로를 의지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60대 남성인 우울증 환자가 부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부인의 첫 마디가 "교수님께 진료를 받은 지도 꽤 오래 되었네요."라고 하였습니다. 의사가 진료 기록을 보니 1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진기록을 보니 부인이 했던 말이 적혀져 있었는데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했더랍니다.
이제 진료가 끝나고 남편을 먼저 내보내고 부인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사는 게 많이 힘듭니다.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데, 언제까지 제가 돌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심정을 이야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는 정말 사랑했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많이 지칩니다. 어디론가 혼자 떠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듭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에 대한 저의 사랑이 이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었나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그동안 진료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보았던 외래 환자들 중에는 남편에게 의지했던 아내도 있고, 아내에게 의지했던 남편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삶을 쏟아 부었던 부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버팀목에 기대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극단적인 상황이 옵니다. 버팀목 같았던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게 되거나, 자신이 아프게 될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이제까지 의지해왔던 상대는 사라지고 오직 자기보존본능만이 발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지금까지 중병에 걸린 환자와 그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해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이 허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글은 계속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생의 안전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 의지하기는 가족 간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줄서기 하는 것도 사람 의지하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파트너를 구하는 것도 사람 의지하기입니다. 자신만의 영웅을 찾기도 하고 연예인의 팬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도 형태를 달리하는 사람 의지하기의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해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의지하는 것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 의지하기의 파괴자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안 식구조차도 원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회의 대표자들이라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으셨습니다. 속된 말로 줄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인간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 연체동물인 오징어 같은 인간은 스스로 절대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오징어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못 박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 존재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못 박힐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서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아무리 사람을 의지할지지라도 결과는 뻔합니다. 스스로 설 수 없다면 타인을 의지해도 설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기에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은 제3할렐시 모음집의 첫 번째 시입니다.
할렐시는 곧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를 일컫는 말입니다. 113~118편은 이집트 할렐시라고도 불리는 제1할렐시였습니다. 그리고 136편이 대할렐시라고 불리는 제2할렐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볼 146편부터 시편의 마지막 150편까지의 다섯 편의 시가 시편을 마무리 짓는 제3할렐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내용상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귀환을 한 선민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왕에게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이때는 왕이 바뀌어서 아닥사스다 1세가 왕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발이 받아들여져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중지됩니다. 이 금지명령은 후대의 다리오 왕 2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시는 이러한 배경 아래에 쓰였습니다.
1절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구절은 단순히 기쁨으로 인한 찬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할 가능성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찬양받으실 분으로 한정하라는 촉구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2절을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찬양에 대한 다짐이 필요한 이유도 1절과 같습니다. 다른 대상을 찬송하게끔 강요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1~2절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에 대한 찬송을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찬양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찬양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3~4절에 나타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의지하지 못할 귀인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선민들은 폐허가 된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리아인들의 고발을 받아들인 아닥사스다 1세의 명령에 의해 예루살

렘 성벽 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만을 보면 선민의 운명은 이방나라 왕들의 생각과 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듯이 이방인들과의 거래와 교제, 타협과 협조 등이 중대한 일의 성패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포로 귀환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고레스 왕 개인의 생각과 정책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왕이 된 아닥사스다 1세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거래하고 교제하고 타협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리라는 후회가 생깁니다. 결국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과의 교제를 중요시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들이 자신들의 삶과 인생의 여정과 운명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노래합니다. 선민들이 각성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귀인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곧 찬양함의 표현입니다. 의지함이란 곧 그가 내 인생에 미치는 능력과 강력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아야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그 원인이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포로귀환을 시키시고 성벽 재건을 허락하신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셨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순을 느꼈던 선민들은 하나님이 아닌 왕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겨냥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귀환 한 선민들에게 사람 의지하기의 경향이 왜 생겨난 것일까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공포되었을 때에는 선민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이 막히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편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우선하고자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삶에서도 쉽게 맞는 말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람 의지하기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애초에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고발장보다도 무력하셨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민들이 재건하고자 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본래 의미였습니다. 성벽과 성전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민들의 마음이 선민답기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담지 않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의 마음에서 주객전도가 일어납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통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시키신 일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일도 안 되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일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마음의 공백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채움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에너지는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백은 하나님을 가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지라도 마음에서는 그 일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장갑 삼아서 그 지시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착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명분으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만을 가질 때에만 생겨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살아있어야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조차도 마음에 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그 모든 약속까지도 버렸던 것입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밖에 세워둔 채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도 잃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선민들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전과 성벽 재건이 선민들의 마음에서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는 것이 아닌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려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하려 합니다.

이들은 이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선민들을 귀환케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되심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선민들은 그러한 마음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들여야 했습니다. 애초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 명령하신 이유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선민의 모습을 되찾게 하려 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민들이 이러한 본래의 목적을 잃었음을 본 시인은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합니다. '도움으로 삼다, 소망을 둔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의 공백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도움은 마음을 채워주는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작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돈 벌면 기쁘리라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기쁘리라는 믿음이 작동합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면 기쁘리라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자체는 기독교인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면 소망하게 됩니다. 돈이 기쁨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갖게 되는 상태를 소망합니다. 의지함에는 믿음과 소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가치가 기쁨과 만족이 된다고 믿고 소망할 때에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포로귀환 한 선민들의 문제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쁨과 만족으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내기 검사가 장래에 검사장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검사장이 되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생긴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선배들을 관찰하며 어느 곳에 줄을 서야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까지 검찰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에 목마른 직원들이 줄서기를 고민합니다. 어느 줄에 서야 회장님의 눈에 들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회사 안에서 전혀 기쁨거리를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회사 밖의 일로 이미 기쁘고 만족한 상태가 되어있다면 줄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회사에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회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결코 자신의 승진을 위해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대한민국 밖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목사님이라면 목회 현장에서 교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체동물입니다. 대통령일지라도 연체동물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기에 누구도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 인(人)이 막대가 서로 버티는 모습을 상징한다는 말이 널리 퍼져있지만 이것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막대가 아니라 인격적 연체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버텨줄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배우자일지라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얻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믿음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도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점에서 연체동물입니다. 나무가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해서 그 본질로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산조차도 스스로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자리에서만 연체동물인 내가 설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시작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의지함은 곧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왕의 능력이나 사마리아인들의 화합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인격적 연체동물인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만 꼿꼿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서만 설 수 있는 인격적 연체동물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고 의

지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입술에서 손과 발에서 열매 맺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